

GM대우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비정규지회 요구안의 수용

- 최근 4년간 정부 혜택과 손실 전가 내역으로 본 사회적 책임

2010년 12월28일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 본 메모는 GM대우가 정부, 지자체로 받는 혜택, 그리고 직간접적 방법으로 부당 유출한 자금을 분석. GM대우 비정규직 농성이 4주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지엠대우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들 농성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정규직화에 힘써야 함을 촉구하기 위함.

1. 지엠대우에 대한 세금 감면 내역

<단위: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법인세	6,402	13,927				20,329
법인세할주민세	640	1,392				2,032
기타지방세	662	693	838	863	965	4,021
합계	7,704	16,012	838	863	965(p)	26,382

- GM대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203억 원을 면제받았고, 동시에 법인세할 주민세 20억 원을 면제 받았음.

- 이밖에 지방정부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기타 지방세를 면제해주었는데, 약 30억 가량임.

-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로부터 감면 받은 액수는 총 4년간 254억 원에 달함.

2. 지엠대우에 대한 지자체 지원 내역

1) 직접 지원

<단위: 억원>

	금액	주요 내용
청라기술연구소 부지 무상 제공	549	총사업비 1520억원

- 인천시와 부평구는 세금 혜택 외에도 여러 지원을 해왔음.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는 549억원을 직접 투자하여 지엠 대우에 제공한 사례.

2) 간접 지원

	금액	주요 내용
지역상생보증펀드	50억	100억 조성(시 50, 은행 50) 보증금액 1,200억(실적:604억)
수출용차량보관소		연 1억 4천만원 물류비 절감
북향 자동차 관리부지 확보		
지엠대우 사주기 운동	84억	99년부터 관용차 약 700대 구입
세븐콜택시와 양해각서체결	240억	연430대, 5년간 2000대 이상

- 간접적으로도 많은 지원. 2009년 지엠대우 위기 시기에 은행권과 함께 부품사 지원 펀드 100억 원을 조성 한 것은 물론 지엠`대우차 사주기 운동으로 관용차 700대를 구입(대당 1200만원 가정시 84억 원). 콜택시업체와 공급 양해각서 체결 지원으로 5년간 2000대(약 240억 원) 판매 예상.

3. 자본 유출

1)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유출

	2006	2007	2008	2009
파생상품처분이익	622	413	1,762	2882
파생상품처분손실	-21	-739	-10,075	-7454
파생상품거래손실	601	-326	-8313	-4572

- 지엠대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파생상품거래로 직접적 손실(평가 손실 제외)만으로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조3,211억 원의 손실을 지엠대우에 입힘. 2006년 이익분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4년간 1조2,610억 원 손실.

- 외환 거래 특성 상 이러한 외환 관련 손실은 거래 상대방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ex. KIKO) 수출 전망이 지엠 계열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결국 지엠 대우의 손실을 지엠이 이득으로 챙긴 것이라 봐도 무방.

- 참고로 2008년 대부분의 한국 수출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이득을 보았음.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국가에서 생산과 수출을 해온 지엠이 외환 변동을 한국 기업들보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 결국 자본 유출을 목적으로 의도적 손실이었을 가능성이 큼.

2) 낮은 매출 채권 회전을

(단위:조, %)

	2006	2007	2008	2009
매출채권회전율	4.3	4.8	5.1	4.5
매출액	9.6	12.5	12.3	9.5
매출채권	2.2	2.6	2.4	2.1

- 낮은 매출채권회수율(매출액/매출채권)도 간접적으로 지엠대우가 지엠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 지엠대우의 매출채권회전율은 4.3~5.1에 불과. 2009년 매출채권 회수율을 타사와 비교해보면 현대차 15.14, 기아차 9.5, 르노삼성 36 (수출대비 8)임.

- 즉 지엠대우가 계열사에 납품하면서 받지 못하는 일종의 외상이 타사에 비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네 배에 이른다는 것.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위험도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자 비용 등을 간접적으로 잃어버리는 효과.

- 기아차 정도의 매출채권회전율만 유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엠대우가 간접적으로 손실 본 이자 소득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56억 원에 이릅니다.(CD연평균이자 기준)

4. 결론

항목	액수	내용
세제혜택	254억	
지방정부 지원	983억	직접지원 549억, 간접지원 434억 원
자본 유출	1조 2,766억	파생상품손실 1조2,610억, 매출채권 156억 원
합계	1조 4,749억	파생상품손실 제외시 1,393억 원

- 지엠대우가 지난 4년간(2006~2009년) 여러 경로로 유출한 국내 부는 1조 4,749억원에 이릅니다. 백번 양보하여 파생상품손실을 제외하더라도 1,393억 원에 이릅니다.

- 지엠대우의 경우 정규직화에 드는 추가 임금 비용이 1인당 연 1,680만원 정도(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가정했을 경우). 지엠대우가 국민경제에 끼친 1조5천억 원 규모의 돈이라면 단순히 계산해도 1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90년간 고용할 수 있는 규모.

- 파생상품손실분을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2007년 기준) 연 2,667만원을 고려할 때 노조 활동으로 인한 부당 해고 노동자 20여명을 고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258년 치 임금)

- 지엠대우는 한국 사회에서 받은 혜택과 한국 경제에 의도적으로 끼친 손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으로 현재 농성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함. 또한 현재 자동차 판매량도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경영 여건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럼함.